

# 유가 고공행진에 밥상물가 '굉충'

한우 가격 1년 새 광주 31%·전남 30% ↑  
삼겹살도 10% 넘게 오르며 전방위 상승  
정부 100억 규모 할인 '물가 안정' 총력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료비와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며 지역 축산물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한우 안심 1등급 100g당 가격은 지난 4일 기준 광주가 1만4천147원, 전남이 1만4천22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광주(1만771원)는 31.3%, 전남(1만943원)은 30.0% 각각 상승한 수치다.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100g 당)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광주가 같은기간 2천494원에서 2천750원으로 10.3%, 전남은 2천441원에서 2천837원으로 16.2% 올랐다.

계란 가격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란 30구 기준 평균 가격은 광주가 6천917원에서 7천562원으로 9.3%, 전남은 6천714원에서 6천999원으로 4.2% 각각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 배경에는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사료비 및 물류비 증가 등 복합적인 비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비 비중이 큰 가운데 국제 곡물가격도 다시 들쭉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증가 기준 부셸(약 2.81kg)당 1천187.8센트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이전까지 부셸당 1천150센트 안팎에서 거래되던 대두 선물은 3월12일 장중 1천232.25센트까지 오르며 보름 만에 6% 이상 급등했다.

이후 지난 4월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1천160-1천170센트 선을 유지했지만, 종전이 이뤄지지 못한 채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주요 곡물도 상황은 비슷하다.

CBOT에서 5월 인도분 소맥 선물은 지난 1일 부셸당 624.5센트에 거래를 마쳐 전평 이전보다

10% 이상 오른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옥수수 선물 가격도 부셸당 488.25센트로, 전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473.75센트에 근접했다.

이처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추가적인 먹거리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총 1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쌀, 계란, 닭고기 등 기존 품목에 더해 양파, 배추, 양배추, 토마토, 참외, 애호박, 파프리카 등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한다.

또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라면·빵·과자 등 가공식품 4천여 개 품목도 최대 58%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56개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열고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김, 전복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 광주신세계, 어버이·스승의 날 카네이션 수요 공략

실속 있는 가격·신선도 높은 상품 구성  
15일까지 지하 1층 '남산농원' 매장서

광주신세계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꽃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5일 "오는 15일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실속 있는 가격과 신선도를 앞세운 상품 구성을 통해 선물 수요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남산농원' 매장(사진)에서는 카네이션과 여러 꽃을 함께 구성한 꽃바



구니(5만5천원)와 화분 형태의 카네이션(1만 원)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전문 플로리스트가 직접 구성한 상품으

로 디자인과 품질을 동시에 잡은 것이 특징이다.

남산농원은 영암군에서 계절과 자연의 흐름에 맞춰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로, 산지에서 매장으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을 줄여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장미와 라넌큘러스 등 다양한 생화 상품도 함께 선보이며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꽃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가정의 달 선물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 신협중앙회, 하반기 신입·경력직원 공채

13일 오후6시까지 지원서 접수

7월 중 최종 합격자 발표

신협중앙회가 2026년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5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입직원

채용 분야는 ▲일반직군(여신지원·관리, 수신지원, 경영지원, 검사·감독, 자금운용, 공제, 기획·총무) ▲IT직군(IT개발·관리)이다. 경력직원은 ▲여신직군(여신기획·지원·관리) ▲수신직군(수신기획·지원) ▲공제직군(공제상품개발·지원) ▲IT직군(IT개발·관리)에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이 기졸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신협중앙회 인사규정상 경력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원서 접수는 13일 오후6시까지 채용 사이트(c.u.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이후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6월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신입직원은 ▲실무진 1차 면접 ▲임원진 2차 면접을 거치며, 경력직원은 ▲실무진 1차 면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재만 기자

##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4월29일-5월4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45% 상승, 코스닥은 02%가량 하락했다. 5월 연휴를 앞둔 관망세와 글로벌 빅테크 실적 우려가 맞물렸지만 역사적인 7,000피를 향해 달려가며 변동성과 폭발적인 매수세가 공존했다.

특히 5월 4일 하루에만 외국인인 무려 코스피를 4조원가량 끌어 올리며 역대급 규모로 대형 반도체 주식을 순 매수했고, 기관도 2조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쌍끌이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닥은 수급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AI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 통신장비를 제외하고는 약세였다.

한 주간 주요 증시 이벤트를 정리하자면, 28일 연휴부터 지속 하락하던 로봇주들이 반등을 주었는데 LG전자가 엔비디아와 로보틱스 협력 논의의 소식이 있었다.

LG전자는 예전부터 로보티즈, 로보스타, 미국의 베이로보틱스 등 다수의 로봇 개발업체 지분을 투자하며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왔었는데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LG전자의 제조 역량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은 전선/전력설비와 수소연료전지가 강세였는데, LS ELECTRIC이 3천200억원 규모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공급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고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확대 소식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더불어 불륨에너지의 호실적 발표에 두산퓨얼셀과 비나텍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위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이거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한 시장은 연관된 수혜주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속 교착되며 전쟁 노이즈 속 유가와 금리의 변동성은 높겠지만, 주

식시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주요 업종들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5월에도 코스피의 영입이 컨센서스 상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증시에서는 5월 중순 이후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 국내에서는 5월 22일 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상장 등 수급상에서도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한 달간 코스피는 월 상승률 30%로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하게 반등했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당장 5월초 8,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3월 조정 시기에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었다면, 현재는 최근 지수 절대 레벨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금리나 AI 관련 약재가 나오며 시장의 단기 과열을 완화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고 전평으로 인한 유가상승의 여파가 뒤늦게 글로벌 경제에 확산될 수도 있다.

주식을 팔 필요는 없지만 추가 매수 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I 사이클의 수혜를 메모리와 전력기기 등 코스피 주력 업종이 받아오고 있어 코스닥의 상승세가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5월 중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와 기금들의 코스닥 비중 확대는 길게 보면 하반기 코스닥의 매력도를 높일 요인이기에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주 시장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첫 번째로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다.

금리가 우호적이진 않지만 코스닥 ETF 자금 유입에 최대 수혜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꼽히기에 ETF 자금 유입 수혜주이자 KOSDAQ150 정기 변경 예상 종목으로 알지노믹스, 오펜테크를 꼽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난 주에 언급 드린 풍력 관련주와 5G 통신주들도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일부 매스컴은 러우전쟁과 이란전쟁의 동시 종결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고 러시아도 더 이상의 전쟁비용 투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 재건 관련주들도 강력한 모멘텀을 갖출 수 있어 보인다. 대형주로는 HD건설기계, 중소형주로는 진성티씨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목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목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곡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